

숲 정 이

부활 제2 주일

제 1 독서 : 사도 2, 42-47
제 2 독서 : I 베드 1, 3-9
복 음 : 요한 20, 19-31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요한 20, 29)

강론

소리

“보고야 믿느냐”

시대의 징표

황 인규 신부 / 중앙천주교회 주임

불신은 이 시대를 특징짓는 요소로서 뜬 소문을 믿을 수 없기에 꼭 확인해 보곤 하는 우리다. 남의 말을 끝이 끝대로 듣는 사람은 실수하기가 일쑤요, 바보가 되기 십상이다. 항상 이성으로 따져야만 믿게 되는 우리들. 이런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우리 시야에서 가려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게만 여겨진다.

사실 토마의 불신도 단순히 부활하신 예수를 현장에서 못 보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죽음 속에서 도저히 부활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을 지니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토마는 부활의 신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렇게 가시적으로 살고 있고 현실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하고 가시적인 것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못 박하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며,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요한 20, 31)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너희는 나를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귀로 신앙의 마음가짐으로 보고 듣고 느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다.

어느 성서학자는 그 당시에 로마군대를 시켜 예수의 무덤을 지키게 한 것도 엄격히 따져보면 예수를 죽음에 부친 대제관이나 율법학자들까지도 예수의 부활 사실을 믿어왔기 때문에 내린 조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토마의 불신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볼 수 있으니 “나는 내병을 낳게 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소. 우리 집안을 잘살게 해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소. 우리 아이를 시험에 합격시켜주지 않으면 믿지 않겠소”하고 있지 않는가? 사도 토마의 불신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시적 요구이지만 우리의 불신은 현세적인 것이며 기복적인 신앙이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의 그리스도는 정녕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그리고 그분은 정녕 다시 살아나셨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암흑에서 방황하는 인류에게 새 생명의 빛을 비추는 광명이었으며, 죽음이라는 암담한 운명앞에 전율하는 인류에게, 영원히 죽지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새 소망을 가져다 주신 사건이다.

지난 10일 서울에서 전세값 폭등으로 셋방을 구할 수 없게 된 가장과 부인 두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연탄불을 피워놓고 집단자살한 것을 비롯 지난 두달동안 셋방살이도 어렵게 된 것을 비판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무주택자가 전국에서 15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아내와 두 남녀 등 세가족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서울의 엄영옥씨는 “정치인등 국가지도자들이 가난한 서민들의 목을 더 이상 조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문을 유서로 남겼다.

이같은 비보를 접할 때마다 이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사회의 한사람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부끄럽고 죄스런 느낌을 갖게된다. 도대체 이땅의 정치지도자들에게 경제정의를 세우고자하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처음부터 국민들의 뜻을 깔아 뭉개고 이뤄진 3당통합이 무슨 기대를 걸지도 않았지만 합당이후 정치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경제 또한 계속 뒤떨려 나가고 있어 애국은 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대통령선거 때 경제정의의 실현합당이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실명제를 실명(失明)시킨 명분이 비실명 자금의 부동산투기자금화와 증시침체였건만 실명제를 압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세는 날로 곤두박질하고 땅값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빈익빈 부익부하고 있다.

주택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서민이 얼마나 더 나와야 경제정의의 실현할 것인지 위정자들에게 묻고자 한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하늘과 땅의 징조는 알면서도 이 시대의 뜻은 왜 알지 못하느냐?”(루가12,56)

숲정이 산책



부활특집①

부활-크리스찬의 기쁨

1975년 5월 교황 바오로 6세는 그의 사도적 권고 「Gaudete in Domino-크리스찬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인류는 각 세대마다 유한성(有限性)을 체험합니다. 오늘날이 세대 역시 기쁨을 얻기 힘든 장애들이 현저하다는 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기술공학(技術工學)의 사회는 인간의 쾌락을 충족시킬 여러 가지 편의는 제공하고 있으나 인간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다른 원천에서 오는 까닭입니다. 기쁨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돈과 권리와 위생과 물질적 안정은 거의 채워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권태와 우울과 슬픔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같은 감정들은 흔히 번민과 실망으로 까지 번지는 일이 많으며, 외면적인 안정, 현재 행운의 탐색, 환각제 사용 등으로써 결코 이러한 번민과 실망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산업발달을 통어(統御)하고 인간다운 사회를 설계할 자신(自信)이 없어진 것입니까? 미래가 너무도 불확실하고 인간 생명이 지나치게 심한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고독(孤獨), 사랑에 주리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소망이 채워지지 않은 데서 오는 불만, 그리고 모호한 공허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 지역, 때로는 우리 사회의 한가운데서도 막중한 육체적, 도덕적 고통이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

수한 사람이 기아(饑饉)로 허덕이며, 무용한 전쟁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으며 가족을 잃고 피로와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참상(慘狀)들은 과거에 비하면 덜 심한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참상들은 전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왔습니다. 홍보수단(弘報手段)으로 말미암아 이 참상들은 더욱 널리 보도되고 사람들의 머리속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인간적인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지만 이같은 상황 때문에 기쁨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못한다거나 기쁨을 찾고 동경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기쁨이 가능한가? 이 문헌은 다음과 같이 결론 맺는다.

“하느님은 당신 외아들을 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부활의 도정에서 복된 변용(變容)을 맞으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알렐루야를 노래하게 하는 이 기쁨 소식이 우리 얼굴을 구원받은 자의 얼굴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도리어 이상합니다...” 그렇다. 신앙은 곧 기쁨이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의 회고록에 “기쁨이여, 기쁨이여, 기쁨의 눈물이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미사해설⑥

「교회 건물은 꼭 필요한가?」

그리스도교는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거룩한 장소가 아니고는 기도드릴 수도 종교의식을 거행할 수도 없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고집하지 않는다. 모든 것, 모든 장소가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후 200년이 지나도록 어떤 종교의식을 위한 건물은 존재하지 않았었다. 교우들이 만나는 곳-가정, 대중식당, 무덤-이 곧 미사의 장소였다. 주께서 맨 처음 미사를 거행하신 곳 역시 한 가정의 2층방이었으며(루가 22,12) 초대 교회 신자들의 미사 장소도 신도의 가정이었다(사도2,46). 때로는 주막집 식탁이 제대가 되기도 하였다(루가 24,29-32). 아무리 훌륭한 집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만든 어느 장소에 하느님을 가두어 놓을 수도 없고 놓아서도 안된다. 아니 때로는 하느님을 위해 지었다는 건물이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기도 한다.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불만합니까?”하고 말하자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앉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응답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마르13,1-2).

교회는 단지 수많은 하느님의 집들중에서 특별히 하느님만을 위한 집으로 선별된 건물인 것이지 그 건물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교회가 갖는 상징적의미, 또한 교회 내부나 외부에 설치된 많은 시설물들-제대, 성모상, 성인 성녀상, 감실, 성가대, 오르간, 성세대, 고해소, 강론대, 십자고상-의 설치 의미를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께 보다 효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로써 만들어진 것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하는 교회’란 기분 나쁜 말 마디가 참 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몇 주간은 우리들이 하느님을 공경하기 위해 꾸며놓은 장소와 물건들의 상징적 의미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편집부)

성심목공업사

성구·제대·강론대·제구장·긴의자
탁상·화분대·혼례용기구 맞춤전문

서 스테파노 (옥봉)
한 인나(은순)

전주 ☎ 77-1747

유치부·국교부·중등부

아이큐속셈학원

원장 권 병 길 (오 한)
원감 심 희 숙 (콜리우디아)

군산시 나운동 (호수가든앞)

☎ 63-6466. 62-1722

금·은·보석·시계·도장·고무인

명랑금방

한 일 섭 (오 영)
김 경 자 (마리아)

전북대 입구

☎ 77-1926. 72-9698

8차 성지 순례단출발
6.26~7.13일 (17박18일)

비엔나·베니스·아제시·로마·바티칸
이스라엘·이집트·스위스·루르드·파리

전일해외여행사

☎6-6666 ~ 8
주 선 (안토니오)

잡 관!

나자렛 예수를 닮은 교회

지난 4월 9일 취임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 병호(빈첸시오) 주교님은 '앞으로의 사목 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무엇 보다도 교회 본래의 정신을 이지역사회에 구현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교회가 있으므로 해서 그 사회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분석·평가해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 알맞은 대책을 수립하는 다각적인 사회과학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차원에서는 교회가 지니고 있는 특유의 접근방식을 동원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타의 사회운동과 다른 점이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방식이란 세상의 악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 즐기차게 노력하면서도 그 행위 밑바탕에는 언제나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며 자신은 단지 그 분의 도구로써 할 일을 다 할 뿐이다는 「자기 포기」의 정신」이 깔려 있는 신앙인의 방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또한 우리 교회의 권위는 사회 통념상의 권위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높은자가 오히려 낮은자의 종이 되는 권위, 즉 "첫째가 말제되고 말제가 첫째되는" 개념의 권위일 때 교회가 교회로써 살아남을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지난 성주간 동안의 주교님 첫 방문지(訪問地)를 동해원, 상지원, 남촌 정작마을로 택한 것은 그 분의 이 아름다운 뜻의 표현이라 하겠다. 나자렛의 예수를 닮은 교회가 되기 위한 몸부림에 우리 모두 함께해야 할 것이다. (권)

교 구 소 식

1. 혼인강좌 : 29일(일) 오전9시30분 전주가톨릭센터 참가비-1인당 5,000원
2. 구역(반)장 연수 : 5월4일(금) 오전10시 대상-3월중 구역(반)장,연수 불참자 참가비-1인당 3,000원
3. 예비 신학생 신학교 방문 : 일시-1990. 4. 29(일) 대상-중·고·대·일반 회비-2,000원(점심값 포함) 집결-8:30분까지 가톨릭센터
4. 전주교구 초·중·고 교리교사의 날(체육대회) : 일시-1990. 5. 2(수) 오전9:30 장소-해성학교 운동장 대상-초·중·고 교리교사 참가비1,000원
5. 전주 '선택의 날' : 일시-1990. 5. 20(일) 장소-관촌 사선대 회비-3,000원(식사대 포함) 집결-전동성당, 9시
6.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피정 : 90년 5월1일(화) 오후5시~5월2일(수) 오후5시(1박2일) 장소-광주시 본촌동 사랑의 씨튼 수녀회 본원 및 수련소(교통편-시내버스 16번, 19번, 본촌동 파출소앞 하차) 준비물-미사보, 세면도구(회비5,000원)
7. 가톨릭 방송안내 : CBS(1314KHZ) 일요일 밤11시~11시30분 「평화가 있는 이밤에」 월요일 오전8시 방송시설 MBC 토요일 밤10시25~30분 「토요일상」 많은 시청 바랍니다.
8. 4월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4월27일(금) 밤11시부터 장소-전동성당
9. 전화번호변경 : 전동성당 사제관 81-0098

□가톨릭 레크리에이션 지도자 강습회 :

- * 일시 : 1990. 5. 18(금) 오후 1:30-20(일) 오후 3:00
- * 장소 : 명덕 적십자 수련원(전주에서 차편으로 25분 소요, 시내버스 : 40. 41번행)
- * 대상 : 초, 중, 고 교리교사, 각본당 단체 레크리에이션 담당자.
- * 강사 : 박찬원, 조한수, 임영준, 강민오, 박용화, 강애경.
- * 회비 : 30,000원(교재대, 숙식비 포함) *접수 및 문의 : 전주교 전주교구 교육국

大 入 宗 합 班

개강 5월 1일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심히 창대하리라”

전주시침연 74-7424

대한성서학회

연지·곤지·웨딩드레스

약혼복·무대복·마춤대어
비디오·아이스빙촬영
신부화장

유 순례 (기타리나)

전동성당 시내버스 승강장

☎ 82-2347

우리전투

박 성 환 (조기리나)
김 명 숙 (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
(중앙성당앞)

☎ 85-8848

요심이 (872) 김병오



양재·한복·홈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려안드레아)
동부시장앞·민정당시원
☎ 86-2715

혼수전문점

주단·침구·모시·삼베
짜끼한복·각종이불맞춤

부인주단

김 한 중 (요한)
황 인 재 (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앞
☎ 84-7294

브랑누아

도시감각의 패션구두

김 순 희 (미카엘라)

오거리

☎ 6-5043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이재 후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김희태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승남

- ※ 김글라라 수녀님 피점 23일~6월14일 보람된 피정을 빕니다.
1. 울드레아 교구대회 5월2일 해상학교강당 오전10시 불참자는 본당신부님과 면담바람.
2. 청년연합회 단합대회 5월2일 관촌사선대(운동복 미사도구지참). 3. 성령기도회미사 26일 7시30분 뜻있는분들의 참여바람.
4. 성모의 밤 행사준비 5월1일예정 헌시, 헌화, 봉헌(각LM, 봉헌준비)
5. 누락자 가정방문 24일, 26일 오후7시30분
6. 모임 빈첸시오 27일 9시30분 제대회-27일10시30분
7. 유아세례 28일 2시30분 대부모선정 문서접수바람.
□ 지난주 봉헌금 성미미사: 838,070원 □ 부활주일: 1,065,430원 □ 교무금: 578,000원

*복자

사제관 86-3453 주임신부 김기수
사무실 86-3455 사목회장 신일균
수녀원 86-3454

1. 평신도 강론: 신금식(암브로시오) 선교부장
2. 삼회: 오늘 오후2시, 3. 빈첸시오회: 26일 오전10시.
4. 회장단회: 29일 저녁미사후.
5. 사순절 저금통 봉헌: 29일 미사중에 있겠습니다.
6. 유아세례: 28일 저녁7시
7. 예비자교리안내: 신부님-목요일 저녁미사후 수녀님-일요일 공식미사후
금주전례: 해설-오교성 독서①안철조 ②유경순
 봉헌-안철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이상인 독서①전호성 ②김순형
 봉헌-전호성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991,890원 □ 교무금: 1,587,700원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석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종석

1. 설기정회: 공식미사후.
2. 울드레아: 25일, 저녁미사후.
3. 성서강의: 25일 개강
4. 성경읽기: 여호수아 1장~10장
5. 제대회: 다음주 공식미사후
6. 감사: 부활제대꽃-윤호사리아씨
7. 금주전례: 해설-송봉덕 독서①남현준 ②장경자 봉헌-영세자
 차주해설: 유만순 독서①박귀철 ②이준봉
 봉헌-박귀철, 유준근씨 부부
8. 꾸리아 독의 행사: 5월5일, 하동, 선착순40명
9. 영세자모임: 다음주 공식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335,410원 □ 교무금: 130,000원

*서학동

사제관 84-8307 주임신부 서석기
사무실 86-4929 사목회장 김명웅
수녀원 84-2276

※ 부활제2주일

1. 회의: 꾸리아-오늘 오후2시
2. ①가정방문-4월25일(수)9반~신천지, 5월16일(수)10반.
 ②꾸리아야의행사 및 만남의 단합대회-5월5일(토)경남하동.
 선착순 접수바람(회비6,000원) ③매주금요일은 금욕의 날입니다.
 ④성당내 모든 물건은 교우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내거처럼
 소중히사용하고 아껴잡시다. ⑤예비자를 인도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490,930원 □ 교무금: 458,000원

*용머리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1. 돼지저금통 봉헌하십시오.
2. 예비자 교리 4월27일부터 시작합니다.
3. 사목회: 다음주 공식미사후(29일)
4. 청소년사: 서완산동 2가 서편
5. 사제관, 수녀원신축현금 수입 총액: 21,674,000원 입금: 9,052,000원 사제관, 수녀원 신축 현금 지난주 납입 총액: 689,000원 □ 성목요일 만찬미사: 155,830원
□ 지난주 봉헌금: 748,190원 □ 교무금: 552,000원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수현
보좌신부 박종충
사목회장 안득수

- ※ 성전보수현금 바람. * 주일헌금배가운동에 전신자 협조바람.
1.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2시.
3. 성령세미나: 남자신자전체 * 일시: 24일~27일 * 저녁미사후 * 회비: 1,000원. 4. 사목회임원 구역장·반장·제단체장 피점: * : 28일~29일 * 천호피점의 집 * 회비: 2,000원
5. 가정방문: 24일-동교동6반, 25일-동교동7반, 26일-서완산동, 27일-남송동4반. 6. 돼지저금통 봉헌 바랍니다.
7. 감사합니다: 윤보두네신부님 사제관자리(대승리땅) 기증-500만원 * 빚장규회장님 * 금주보수신입액: 없음. * 금주보수비현금액: 3,135,000원 * 현재모금총액: 137,688,159원 □ 지난주 봉헌금: 2,439,040원

*화산동

사제관 87-9843 주임신부 김준호
사무실 87-9842 사목회장 박영근

1. 금일 공식미사중에 성당비품 봉헌식이 있습니다.
2. 미사안내: 매주 목요일 오전10시.
□ 지난주 봉헌금: 115,510원 □ 부활성야헌금: 118,460원 □ 교무금: 100,000원

*평화동

사제관 85-6979 주임신부 박병준
사무실 83-8245 사목회장 김광환
수녀원 87-0229

- ※ 축하! 영명: 필립보(5월3일)본당신부님, 축하식-다음주공식미사후. * 신앙쇄신 특별강론: 한명자(리디아), 주제-사랑, 나눔, 실천. * 예비신자모집: 16일~30일까지, 개강-5월6일. * 미사시간 변경: 알림란 참조. * 사제양성후원 돼지저금통 봉헌: 다음주일까지.
1. 울드레아: 공식미사후. 2. 꾸리아: 오늘 오후3시. 3. 구역형제회 일정: 24일(화) 오전10시-12반, 10시30분-6가반, 11시-6다반, 오후2시30분-24가반, 3시-24나반, 3시30분-25반, 4시-20반. 26일(목)오후7시30분-15반, 8시-16반, 8시30분-17,18반. 27일(금)오후7시30분-30반. 4. 차주전례: 합동권 복사-강상근, 서영상 봉헌-이정문
□ 지난주 봉헌금: 869,400원 □ 교무금: 302,600원

*효자동

본당 83-3841 사무실 84-0915 주임신부 유종환
보좌 81-0050 수녀원 84-4804 보좌신부 김태환
사목회장 황수석

1. 감사: 부활 대축일 행사에 협조해 주신 형제들께 * 외딴교우 초대, 복권놀이, 음식바자회 등 성향이름. 2. 새 예비자 교리시간: ①일요일반-전9:30 ②화요일반-전10:30 ③목요일반-후8시. * 1신자 1예비자를 인도합니다. 3. 수요일 성서교실 개강: 5월 첫수요일. ①어미반-후2시 ②일반-후8시 * 성서를 공부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4. 지속적인 성체조배에 참여합니다. 5. 부활삼중: 성신장림남까지. 6. 사순절 사랑의 나눔 돼지저금통 봉헌에 감사합니다. 7. 미사시간을 지킵시다. : 10분전까지 입장완료. 8. 청소년모임: 상산교부근. 9. 꾸리아: 25일 오전10시30분. 10. 사목회례회: 27일 오후8시.
□ 부활성야헌금: 565,080원 □ 지난주 봉헌금: 1,329,290원 □ 2차헌금: 1,192,000원 □ 교무금: 363,960원

*효자우전

사제관 86-3712 주임신부 박창신
사무실 86-3711 사목회장 김홍두
수녀원 87-0711

1. 예비자입교식: 공식미사후
2. 반희장 기도회 준비모임: 27(금), 어머니미사후
3. 유아세례: 28(토) 오후2:00
4.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9:30분 오후8:30 매주 일요일 오전9:00 종교생 오전10:00
5. 가정방문: 24(화) 사거리1반, 26(목) 사거리2반. 6. 공소미사: 상개리교소 8시
차주모임: 꾸리아 윌례회, ME 첫모임, 돌담회 나눔의 헌금
금주전례: 해설-박명래 독서①김인근 ②김명화
 기도-김두길 송영이
차주전례: 해설-김인근 독서①정상수 ②조숙례
 기도-김인원 임순덕
□ 지난주 봉헌금: 1,108,700원 □ 교무금: 436,000원